

Weekly Credit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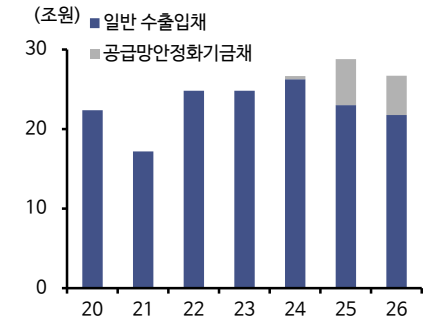
Credit Analyst **차주희** | ☎ (02) 3772-2653 ✉ juhuicha9@shinhan.com
김상인 | ☎ (02) 3772-2636 ✉ ksi0612@shinhan.com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현황 공개. 대기업 중심 자금 지원 강화

-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수입선 다변화 등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금융지원 확대. 기금 지원액은 2024년 2.1조원에서 2025년 7.1조원, 2026년 9월말 8.1조원으로 증가
- 올해 상반기 중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원유 구매자금 등 대규모 자금 소요. 지원금액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 지원건수 기준으로는 대기업 비중이 51%으로 과반 이상이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이 각각 25%, 24%로 높은 수준
-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액은 작년 5.8조원에서 올해 누적 4.9조원 기록 중. 중동전쟁 지속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기업 중심 자금 지원될 가능성. 매크로 위험이 정부 신용으로 흡수되는 효과

수출입은행 채권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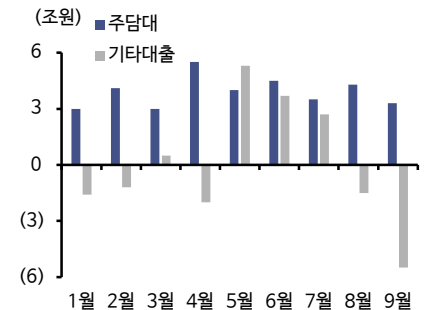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신한투자증권

9월 가계대출 올해 처음 감소 전환. 은행채 발행 부담 완화 기대

-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2조원 감소해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 주담대가 3.3조원 증가해 전월(+4.3조원) 대비 감소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1.5조원→-5.5조원)된 영향
- 은행 가계대출 0.6조원 증가로 전월(+3.5조원) 대비 감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8조원 감소로 감소폭 확대(전월 -0.7조원). 상호금융(-0.4조원→-0.7조원)·보험(-0.3조원→-0.8조원)·여전사(-0.3조원→-0.9조원) 감소폭 확대. 저축은행은 감소 전환(+0.3조원→-0.4조원)
- 신용대출 감소가 컸던 가운데 주택거래량 및 입주물량 감소,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과 명절 상여금 등 요인에 가계대출 감소. 10월 주식 급락을 배경으로 가계대출 취급 제한돼 은행채 발행 부담 완화 기대

가계대출 추이. 기타대출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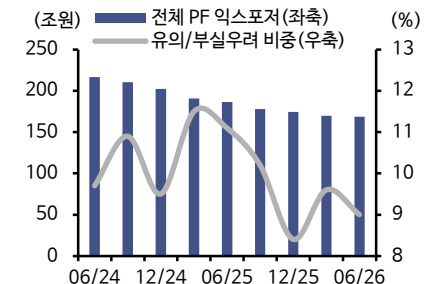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부동산PF 상황 발표. 시장 안정화 속 PF 대출 증가 전환

- 6월말 부동산PF 현황 발표. PF익스포저는 168.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원 감소. PF대출은 115.8조원으로 2023년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 올해 2분기에만 23.5조원이 신규 취급되며 신규자금 원활히 공급
- 6월말 PF대출 연체율 4.56%로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9%p 하락.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3월말 16.4조원 대비 감소한 15.1조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현재까지 19.7조원 정리·재구조화 단행
- PF 시장 안정화된 가운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 부실사업장에 대한 캠프펀드 3조원 규모 신규 조성, 신디케이트론 확대, PF 자기자본비를 규제 유예 등으로 PF 시장 정상화 유도

PF 익스포저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신한투자증권



크레딧 시장 동향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신용 스프레드 전 섹터 확대

- 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 큰 폭 하락 마감.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확대와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에 강세 흐름 지속. 10월 금통위 동결 기대가 우세한 점도 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
- 신용 스프레드는 국고채 금리 하락 폭 따라가지 못하며 전 섹터 확대. 전반적으로 높게 지속된 공급 부담에 약세 압력 가중. 다만 양호한 캐리 수요 유입으로 물량 소화는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것으로 판단

발행시장: 특은채 중심 은행채 순상환. 공사채 대폭 순발행 및 회사채 10주 만에 순발행 전환

- 공사채 : 발행 34,723억원 / 만기 14,601억원 / 순발행 20,122억원
- 은행채 : 발행 57,400억원 / 만기 78,260억원 / 순발행 -20,860억원
- 카드채 : 발행 8,900억원 / 만기 5,100억원 / 순발행 3,800억원
- 캐피탈채: 발행 18,140억원 / 만기 6,210억원 / 순발행 11,930억원
- 회사채 : 발행 15,950억원 / 만기 9,900억원 / 순발행 6,050억원

유통시장: 안전자산 선호로 크레딧 대거 순매수. 운용사가 수요 견인

- 지난주 크레딧 거래량은 지지난주 28.1조원 대비 증가한 46.5조원. 기금/공제가 2년 이하 크레딧 순매도를 보였으나 운용사의 은행채 중심 순매수 유입. 그 외 투자자 역시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채권 투자 확대

회사채 수요예측: 상위등급 견조한 대기 수요 확인

- 지난주 수요예측 진행한 기업 모두 무난히 자금 모집에 성공하며 순항 지속. 특히 상위등급 기업의 경우 예측금액 대비 10배가 넘는 주문을 받으면서 견조한 대기 수요 확인

금리 및 신용 스프레드 테이블																					
채권구분		금리 (%)					신용 스프레드 (bp)					주간 스프레드 변동 (bp)					월간 스프레드 변동 (bp)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국채	국고채	3.63	3.81	3.84	3.97	4.17	-	-	-	-	-	(8.8)	(10.5)	(16.2)	(20.4)	(24.7)	(4.4)	(19.5)	(26.2)	(37.7)	(43.5)
특수채	AAA	3.98	4.12	4.20	4.28	4.34	42.5	29.7	36.1	30.7	17.8	(8.8)	1.5	1.7	1.1	0.0	(9.5)	4.0	3.3	2.1	0.0
	AA+	4.05	4.22	4.30	4.40	4.54	49.4	40.4	46.8	43.1	37.5	(8.8)	1.3	1.7	1.1	0.0	(9.2)	3.8	3.2	2.0	0.0
은행채	AAA	4.00	4.14	4.22	4.29	4.59	44.9	31.9	38.5	32.4	42.1	(7.5)	2.2	1.7	0.5	0.0	(10.0)	5.9	4.6	1.5	0.0
	AA+	4.05	4.22	4.29	4.37	4.67	49.9	40.0	45.8	40.0	50.2	(7.5)	2.2	1.6	0.5	0.0	(10.0)	5.8	4.6	1.6	(0.0)
여전채	AA+	4.18	4.40	4.42	4.42	5.53	62.5	57.9	58.4	45.0	136.1	(8.1)	0.3	0.8	3.5	0.1	(5.8)	6.0	3.9	4.5	0.1
	AA0	4.20	4.43	4.49	4.58	5.70	64.1	61.1	65.4	61.2	153.5	(8.1)	0.3	1.3	2.5	0.2	(5.6)	6.0	4.4	3.2	0.2
	AA-	4.26	4.52	4.58	4.68	5.92	70.7	69.6	74.1	70.5	175.9	(8.1)	0.3	1.3	2.5	0.2	(5.6)	6.0	4.5	3.5	0.2
	A+	4.62	4.99	5.36	5.80	6.63	106.9	117.2	152.0	183.1	246.0	(7.5)	(0.1)	1.0	2.4	0.2	(5.0)	5.0	4.0	2.6	0.2
	A0	5.28	5.74	6.13	6.46	7.05	172.9	192.3	229.2	249.2	288.0	(7.9)	0.0	0.9	2.4	0.1	(5.5)	5.0	3.9	2.7	0.1
	A-	5.85	6.31	6.77	7.11	7.69	229.5	248.8	293.4	313.7	352.3	(7.5)	0.0	0.9	2.4	0.2	(5.0)	5.1	3.9	2.7	0.2
	BBB+	6.59	7.33	7.84	8.09	8.72	303.4	351.0	400.7	411.6	455.7	(7.9)	0.0	1.0	2.4	0.1	(5.7)	4.7	3.8	2.6	0.1
회사채	AAA	4.10	4.29	4.32	4.34	4.66	54.3	47.3	48.8	37.4	49.6	(8.0)	(0.8)	1.3	2.2	0.4	(5.9)	0.6	2.3	1.5	0.4
	AA+	4.19	4.37	4.42	4.44	4.95	64.0	55.2	58.9	46.8	78.0	(7.8)	(1.1)	1.4	2.2	0.4	(5.3)	0.1	2.3	1.8	0.4
	AA0	4.23	4.40	4.46	4.50	5.29	67.7	58.3	62.9	53.4	112.0	(7.8)	(1.1)	1.3	2.1	0.3	(5.3)	0.1	2.3	1.7	0.3
	AA-	4.27	4.45	4.51	4.61	5.65	71.3	63.2	67.9	63.5	148.2	(7.8)	(1.1)	1.2	1.9	0.3	(5.3)	0.1	2.1	1.5	0.3
	A+	4.41	4.73	4.90	5.26	6.23	86.0	91.4	106.5	129.2	206.1	(7.5)	(1.0)	1.0	1.7	0.4	(4.8)	0.3	2.2	1.1	0.4
	A0	4.57	4.92	5.17	5.71	6.69	101.8	110.2	133.7	174.2	252.3	(7.4)	(1.0)	1.0	1.7	0.4	(4.8)	0.3	2.2	1.0	0.4
	A-	4.84	5.27	5.63	6.30	7.20	128.7	145.4	179.6	233.2	303.3	(7.5)	(1.0)	1.0	1.7	0.3	(4.8)	0.3	2.2	1.0	0.3
	BBB+	5.90	7.31	7.90	8.18	8.70	234.3	349.1	406.0	421.2	453.6	(7.5)	(1.0)	1.0	1.7	0.3	(5.0)	0.1	2.2	1.1	0.3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1, 2년 만기 신용 스프레드는 통안채 금리 대비. 10월 16일 기준

국고채 금리: 위험회피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에 큰 폭 하락

· 주간 변동: 3Y 3.835%(-16.2bp) / 10Y 4.165%(-24.7bp)

지난주 국고채 금리는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확대와 외국인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에 큰 폭 하락 마감했다. 주 초반 국고채 시장은 국내 휴장 기간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강세 출발했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을 대거 순매수하며 금리에 하락 압력을 더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락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것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 중반에는 급격한 강세에 대한 되돌림 장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증시 약세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 금통위 동결 기대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국고채 금리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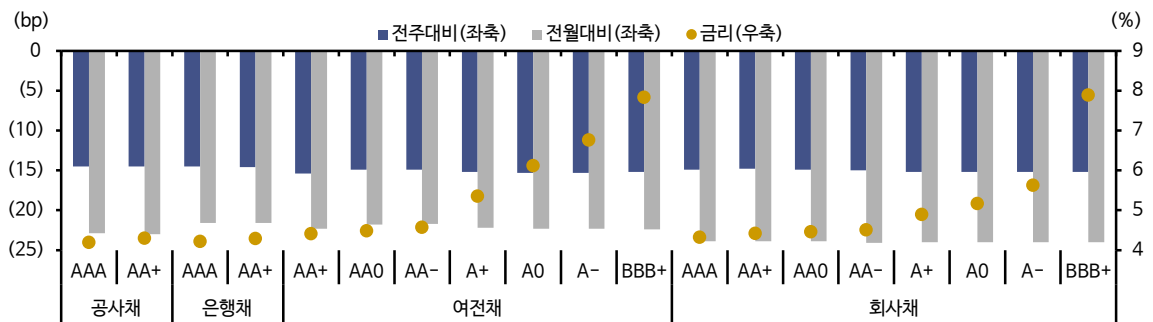
신용 스프레드: 금리 하락에도 전 섹터 확대

· 주간 변동(3Y): 공사채AAA +1.7bp/은행채AAA +1.7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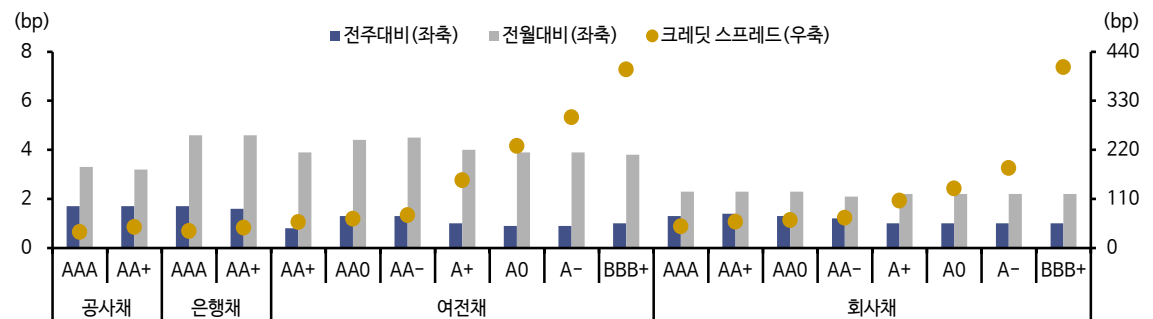
여전채AA- +1.3bp/여전채A+ +1.0bp/회사채AA- +1.2bp/회사채A+ +1.0bp

신용 스프레드는 3년물 기준 전 섹터 확대됐다. 국고채 금리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강세 폭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여전·회사채는 지난주 대비 순발행이 증가하는 등 크레딧 발행 압력은 전반적으로 높게 지속됐다. 공급 부담으로 인한 약세 압력에도 운용, 은행 등 투자자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며 물량 소화는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주 우량급 기업 수요예측에서는 유효경쟁물이 10배를 상회함에 따라 견조한 대기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채권형 자금은 주식 조정으로 인한 위험회피 증대 속 증가 전환했다. 높은 공급 부담에도 양호한 캐리 수요 유입으로 수급 우려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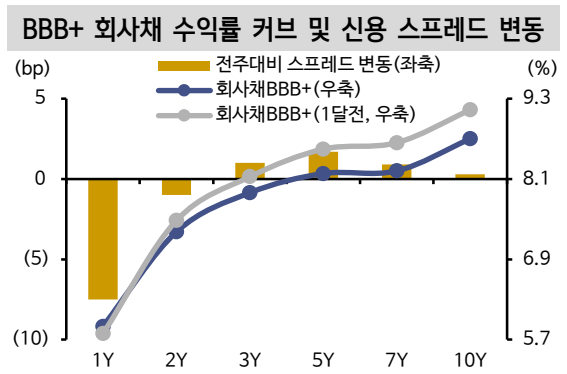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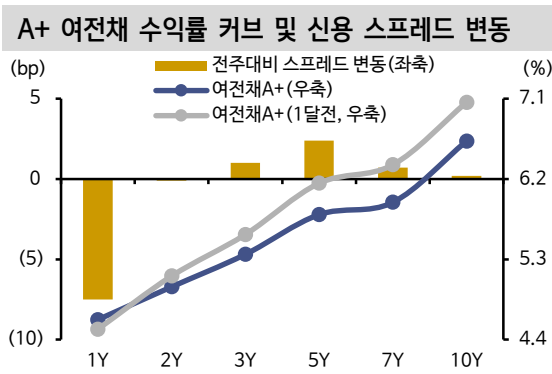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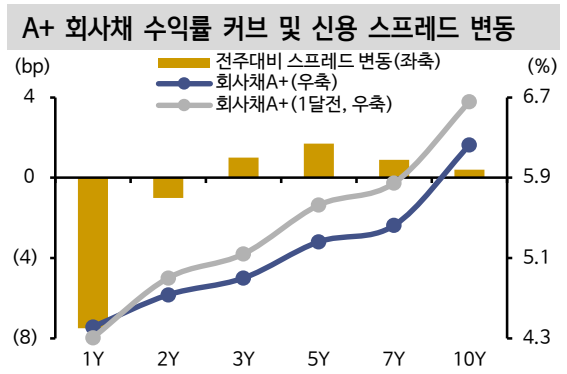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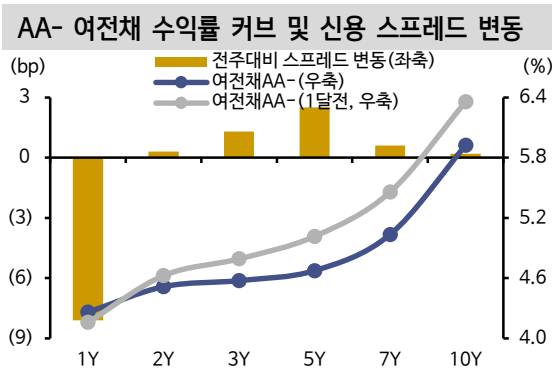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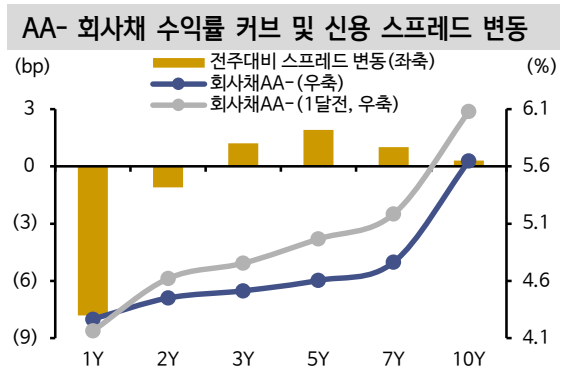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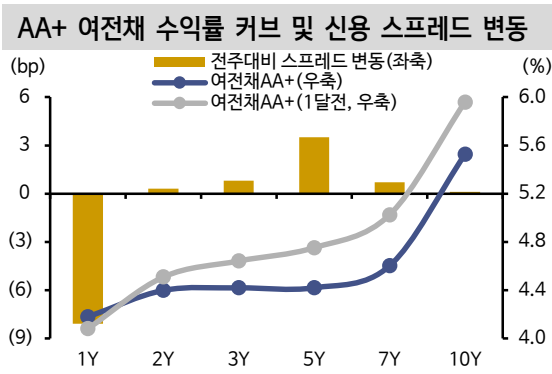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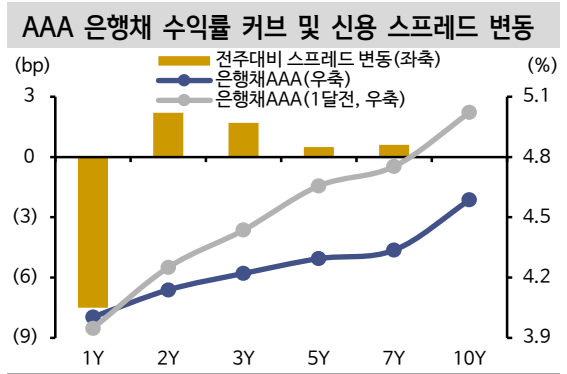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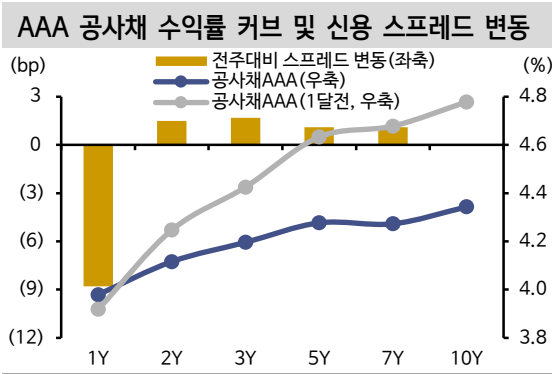
섹터별 금리 변동(3년물 기준)



섹터별 스프레드 변동(3년물 기준)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10월 16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10월 16일 기준



섹터별 발행 동향

공사채: 발행 34,723억원 / 만기 14,601억원 / 순발행 20,122억원

전 부문 발행 증가로 공사채는 순발행을 기록했다. 부동산 부문은 MBS(7,323)·LH(3,300)·주금공(2,400)·도로공사(2,200) 4곳에서 큰 폭 발행된 반면 만기는 크지 않아 대폭 순발행됐다. 에너지 부문 만기는 한전 2,000억원에 불과했던 반면 발행은 한전 5,600억원과 가스공사 1,700억원이 있었다. 기타부문은 농협중앙회(3,300)·지방공기업(2,700)·인국공(1,400)·수자원공(1,300)·중벤통(1,200)·코레일(1,000)에서 발행을 기록했다.

은행채: 발행 57,400억원 / 만기 78,260억원 / 순발행 -20,860억원

시은채 순발행에도 특은·지방은행채 중심 순상환됐다. 특은채 발행은 IBK(9,400)·KDB(5,400)·NH(5,200)·수출입(6,700)·SH(900)에서 크지 않았던 반면 KDB(18,700)·수출입(17,800)·KDB(13,300)·NH(10,900)·SH(500) 대규모 만기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채는 하나(13,500)·KB(7,300)·신한(5,700)·우리(2,100)·IM(600)에서 발행됐고, 지방은행채 발행은 전북(600) 뿐으로 부산(3,000)과 광주(1,200)에서 만기 도래하며 순상환됐다.

카드채: 발행 8,900억원 / 만기 5,100억원 / 순발행 3,800억원

카드채는 6주 연속 순발행을 이어갔다. 삼성(2,500)·우리(2,000)·KB(1,600)·신한(1,500)·비씨(1,300) 5곳에서 발행됐고, 우리(1,800)·롯데(1,200)·신한(1,000)·KB(500)·현대(500)·삼성(100) 6곳에서 만기가 도래했다.

캐피탈채: 발행 18,140억원 / 만기 6,210억원 / 순발행 11,930억원

캐피탈채는 상하위등급 모두 순발행됐다. 상위등급 발행은 NH(3,100)·KB(3,000)·BNK(2,600)·하나(1,600)·현대(1,600)·IBK(1,500)·IM(1,200) 7곳이 있었다. 하위등급 발행은 메리츠(2,000)·MG(1,500) 2곳에 불과했으나 개별 기관에서 큰 폭 발행되면서 순발행을 이끌었다.

회사채: 발행 15,950억원 / 만기 9,900억원 / 순발행 6,050억원

한투지주(5,000)·메리츠증권(2,000)이 발행 절반 수준을 차지했으나 고려아연(3,000)·현대트랜시스(2,000)·에코클로버(1,523)·롯데리츠(1,250)·파라다이스(850) 등 일반기업 발행이 증가하며 10주만에 순발행 전환됐다.

섹터별 발행/만기/순발행											
공사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부동산 (MBS 포함)	발행	16,523	특수은행	발행	27,600	카드채	발행	8,900	AA-이상	발행	12,000
	만기	4,401		만기	61,200		만기	5,100	회사채	만기	8,050
	순발행	12,122		순발행	-33,600		순발행	3,800	순발행	3,950	
에너지	발행	7,300	시중은행	발행	29,200	AA-이상 캐피탈채	발행	14,600	A급	발행	990
	만기	2,000		만기	12,860		만기	4,650	회사채	만기	800
	순발행	5,300		순발행	16,340		순발행	9,950	순발행	190	
기타	발행	10,900	지방은행	발행	600	A+이하 캐피탈채	발행	3,540	BBB급이하	발행	100
	만기	8,200		만기	4,200		만기	1,560	회사채	만기	800
	순발행	2,700		순발행	-3,600		순발행	1,980	순발행	-700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2026.10.12~10.16, 억원 기준

공사채/은행채 주간 발행

공사채					은행채				
종목명	발행일	등급	발행액 (억원)	발행 금리 (%)	종목명	발행일	등급	발행액 (억원)	발행 금리 (%)
농금채(중앙회)2026-100 3Y-C	2026-10-13	AAA	3,300	4.330	하나은행49-100 0.75갑12	2026-10-12	AAA	7,000	3.970
토지주택채권637	2026-10-12	AAA	2,000	4.355	기업은행(단)2610할304A-12	2026-10-12	AAA	4,700	3.800
한국전력1633	2026-10-12	AAA	1,700	4.420	하나은행49-100 1.5갑14(1-변)	2026-10-14	AAA	4,500	3.700
한국전력1636	2026-10-14	AAA	1,600	4.307	농업금융채권(은행)2026-100 1Y-D(변 동)	2026-10-13	AAA	3,400	3.630
인천국제공항공사215	2026-10-14	AAA	1,400	4.335	기업은행(신)26100 2A-12(사)	2026-10-12	AAA	3,300	4.130
주택금융공사308(사)	2026-10-15	AAA	1,300	4.170	국민은행4610할인일9M-14	2026-10-14	AAA	2,500	3.860
토지주택채권638	2026-10-13	AAA	1,300	4.400	신한은행30-10-이-3-A	2026-10-16	AAA	2,500	4.260
국가철도공단채권458	2026-10-16	AAA	1,300	4.309	산금26신이0200-1013-1	2026-10-13	AAA	2,500	4.110
한국수자원공사298	2026-10-15	AAA	1,300	4.308	한국수출입금융2610마-할인-182	2026-10-13	AAA	2,200	3.620
주택금융공사MBS 2026-26(1-4)(사)	2026-10-16	AAA	1,300	4.365	신한은행30-10-이-9M-A	2026-10-16	AAA	2,100	3.960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959(사)	2026-10-15	AAA	1,200	4.304	국민은행46100 표일(03)1-13	2026-10-13	AAA	2,000	4.030
주택금융공사307(사)	2026-10-12	AAA	1,100	4.200	하나은행49100 0.67갑16(1-변)	2026-10-16	AAA	2,000	3.650
인천도시공사278(사)	2026-10-14	AA+	1,100	4.378	한국수출입금융2610바-할인-212	2026-10-14	AAA	2,000	3.700
도로공사1025	2026-10-14	AAA	1,100	4.249	농업금융채권(은행)2026-100 10M-C (변동)	2026-10-12	AAA	1,800	3.620
주택금융공사MBS 2026-26(1-2)(사)	2026-10-16	AAA	1,100	4.130	국민은행46100 표(03)3-14(녹)	2026-10-14	AAA	1,500	4.280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주: 2026.10.12~10.16 기준

여전채/회사채 주간 발행

여전채					회사채				
종목명	발행일	등급	발행액 (억원)	발행 금리 (%)	종목명	발행일	등급	발행액 (억원)	발행 금리 (%)
메리츠캐피탈307-2	2026-10-15	A+	1,900	5.055	교려아연14	2026-10-13	AA	3,000	4.756
케이비캐피탈590-1	2026-10-14	AA-	1,500	4.487	한국투자금융지주42-1	2026-10-13	AA-	2,600	4.548
비씨카드194	2026-10-16	AA+	1,300	4.474	한국투자금융지주42-2	2026-10-13	AA-	2,400	4.631
케이비국민카드458-1	2026-10-12	AA+	1,100	4.538	메리츠증권2610-1	2026-10-13	AA	2,000	4.331
우리카드299-3	2026-10-14	AA	1,000	4.509	에코클로버6	2026-10-16		1,523	
삼성카드2922	2026-10-15	AA+	1,000	4.425	현대트랜시스51-2	2026-10-12	AA-	1,200	4.554
케이비캐피탈590-3	2026-10-14	AA-	800	4.56	현대트랜시스51-1	2026-10-12	AA-	800	4.457
아이엠캐피탈157-2	2026-10-14	AA-	800	4.766	롯데리츠10-2	2026-10-16	AA-	750	4.844
현대캐피탈2117-3	2026-10-16	AA+	700	4.641	파라다이스9-1	2026-10-14	A+	550	4.610
엠지캐피탈412-5	2026-10-15	A	700	5.662	롯데리츠10-1	2026-10-16	AA-	500	4.640
케이비캐피탈590-2	2026-10-14	AA-	700	4.487	파라다이스9-2	2026-10-14	A+	300	4.972
현대캐피탈2117-1	2026-10-16	AA+	600	4.457	코람코리아프인프라위10	2026-10-16	A-	140	6.000
신한카드2308-2	2026-10-13	AA+	600	4.574	시네트웍스104	2026-10-16	BBB+	100	5.100
엔에이치농협캐피탈272-7	2026-10-16	AA-	600	4.49	한세엠케이15	2026-10-14		50	6.250
아이비케이캐피탈363-5	2026-10-15	AA-	500	4.549	엘제이제7차8-1-1	2026-10-14		26	5.300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주: 2026.10.12~10.16 기준

시장 거래 동향

안전자산 선호로 크레딧 대거 순매수. 운용사가 수요 견인

지난주 크레딧 거래량은 지지난주 28.1조원 대비 크게 증가한 46.5조원을 기록했다. 기금/공제만 2년 이하 구간에서 크레딧 순매도를 보였고, 운용사가 채권형펀드 자금 유입에 힘입어 대거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 외 투자자 역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주 발행이 많았던 공사채는 은행이 가장 큰 매수 주체로 나섰다. 운용사 역시 은행과 비슷한 수준 순매수를 보였으나 농금채, 수자원공사채, 한전채 등 RW 0% 외 채권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은행채는 운용사가 3.2조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채 발행이 많았던 영향으로 특은채 대규모 순상환이 일부 수급 부담을 낮춰줬다. 채권형펀드와 MMF 단기파킹형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짧은 듀레이션의 은행채 선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전·회사채 역시 운용사가 전체 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급을 뒷받침했다.

1년 이하 구간에서 기금/공제가 대거 순매도를 보였다. 반면 은행채 중심 운용사가 짧은 구간 순매수를 지속했고 은행은 2~3년물 수급이 집중됐다. 장기물에서는 보험사 수요가 일부 유입됐으나 규모는 크지 않았다.

장외시장 채권 종류별 순매수

(단위, 억원)	외국인	은행	보험	기금/공제	정부	운용(공모)	운용(사모)	종금/상호	기타법인	개인	선물	전체
국채전체	12,925	(122)	(754)	(6,115)	(158)	(11,089)	(100)	300	57	2,890	51	(2,113)
국고채	12,925	(642)	(754)	(6,708)	(255)	(10,931)	(100)	400	44	882	41	(5,097)
통안	2,450	8,000	290	(200)	(200)	(1,090)	0	(200)	0	0	0	9,050
공사채	600	14,314	3,100	75	1,658	13,952	200	700	1,747	306	3	36,658
은행채	3,200	12,400	940	(8,500)	702	32,462	800	600	384	1,253	0	44,242
카드채	0	1,100	490	400	(10)	4,450	(100)	270	249	(48)	2	6,804
캐피탈채	0	979	3,000	680	700	8,810	673	115	(27)	1,171	39	16,141
회사채	0	833	(324)	(1,719)	250	3,751	320	312	650	877	8	4,959
ABS	0	230	0	1,227	0	58	(400)	300	501	(15)	0	1,901
전체	19,155	37,501	6,621	(14,241)	2,913	51,108	1,393	2,406	5,508	6,842	111	119,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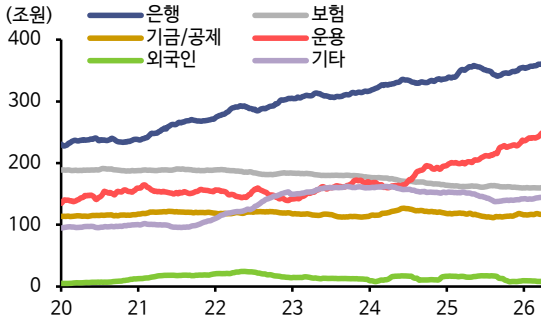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2026.10.12~10.16 기준

장외시장 만기별 크레딧채권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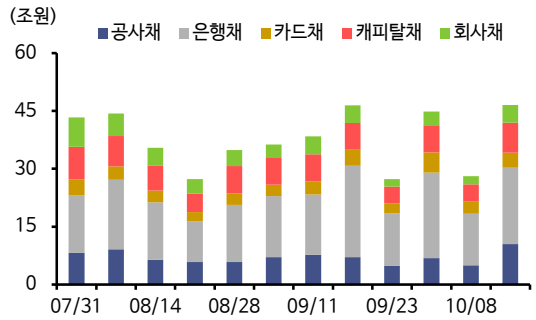
(단위, 억원)	외국인	은행	보험	기금/공제	정부	운용(공모)	운용(사모)	종금/상호	기타법인	개인	선물	전체
6M 이하	0	1,538	840	(2,500)	(100)	27,420	159	200	(34)	2,271	5	29,799
1Y 이하	500	3,045	(880)	(8,573)	60	13,383	210	(184)	1,893	345	6	9,806
2Y 이하	3,300	8,426	1,399	(4,999)	1,400	9,801	724	533	222	670	29	21,506
3Y 이하	0	10,348	1,336	5,651	890	9,978	400	749	1,484	256	13	31,107
5Y 이하	0	6,300	2,110	1,783	348	2,295	0	700	1,544	(22)	0	15,059
7Y 이하	0	200	100	301	400	423	0	(3)	200	0	0	1,622
10Y 이하	0	(3)	400	300	200	0	0	0	1	27	0	926
15Y 이하	0	0	0	0	0	0	0	0	0	0	0	0
20Y 이하	0	0	600	400	0	0	0	300	300	0	0	1,600
30Y 이하	0	(100)	1,300	(200)	100	(16)	0	0	(169)	(309)	0	604
30Y 초과	(19)	10	(50)	0	2	2	0	0	70	138	0	154
전체	3,780	29,764	7,155	(7,837)	3,301	63,287	1,493	2,295	5,512	3,378	54	112,186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ABS 및 기타 회사채 포함. 2026.10.12~10.1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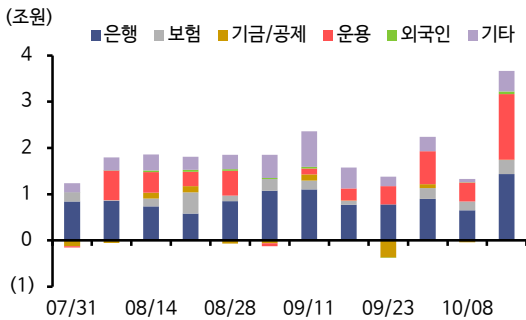
크레딧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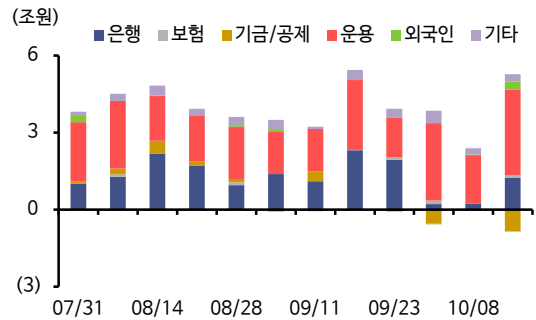
크레딧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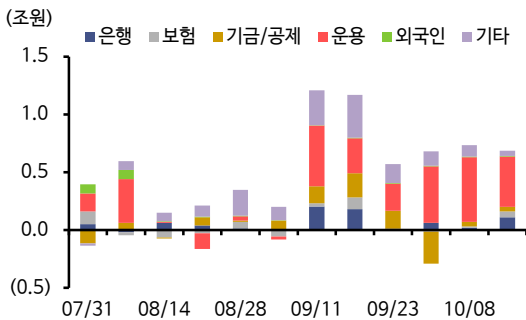
투자자별 공사채 순매수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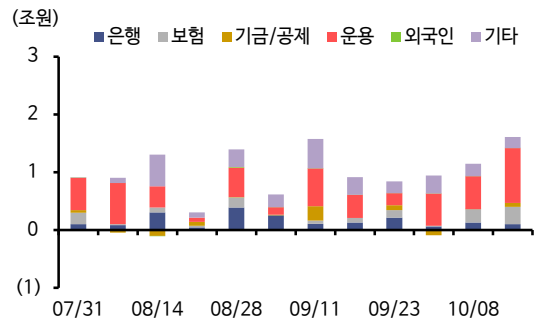
투자자별 은행채 순매수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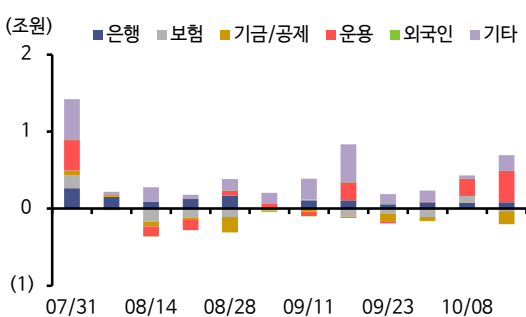
투자자별 카드채 순매수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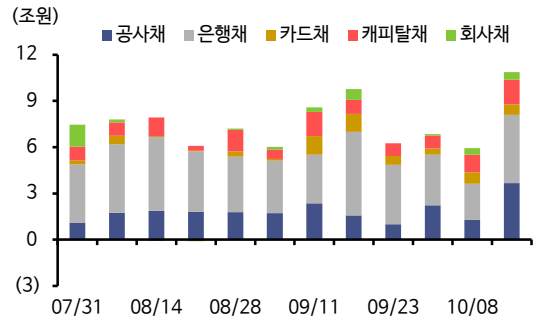
투자자별 캐피탈채 순매수 거래량



투자자별 회사채 순매수 거래량



크레딧 섹터별 순매수 거래량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회사채 수요예측 및 신용등급 변경

회사채 수요예측: 상위등급 견조한 대기 수요 확인

지난주 수요예측을 진행한 네 개의 기업 모두 무난히 자금 모집에 성공하며 수요예측 순향이 지속됐다. 특히 상위등급 기업의 경우 예측금액 대비 10배가 넘는 주문을 받으면서 견조한 대기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사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유효경쟁률을 기록했다. 강한 수요에 힘입어 네 기업 모두 증액 발행을 결정했으며 금리도 대체로 언더 혹은 소폭 오버 수준에서 형성됐다.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수요예측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신용도 및 펀더멘털이 양호한 기업들은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LG유플러스(AA+)는 총 1,500억원 모집에 1조 7,10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했다. 2년물, 3년물 각각 12.30배, 10.95배의 높은 유효경쟁률을 기록했다. 풍부한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2배 증액한 총 3,000억원의 발행을 확정했다. 금리는 민평 대비 소폭 언더 수준(-2bp)에서 형성됐다.

GS(AA0)는 총 1,000억원 모집에 1조 3,70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유효경쟁률은 2년물과 3년물 각각 13.00배, 14.4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년물 500억원 증액을 결정했으며, 금리는 2년물 -11bp, 3년물 -10bp로 모두 민평 대비 언더 수준에서 결정됐다.

키움에프앤아이(A0)는 총 1,000억원 모집에 4,200억원의 주문을 확보했다. 2년물, 3년물 각각 4.30배, 4.05배에 달하는 양호한 유효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액을 상회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2배에 가까운 증액 발행을 결정했다. 금리는 2년물 -5bp, 3년물 -15bp로 언더 발행에 성공했다.

LS증권(A0)은 총 700억원 모집에 4,64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양호한 수요예측 결과를 나타냈다. 1.5년물 5.30배, 2년물 8.40배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 견조한 수요에 2배에 가까운 증액 발행에 나섰으며, 금리는 두 트랜치 모두 소폭 오버(+5bp) 수준에서 결정됐다.

지난주 회사채 수요예측 현황

종목명	신용 등급	수요 예측일	수요 예측	밴드 포함	발행 확정	유효 경쟁률	만기	밴드 기준금리	하단 (bp)	상단 (bp)	결정 금리 (bp)	발행 금리	발행일
LG유플러스121-1	AA+	2026-10-13	500	6,150	1,100	12.30	2.0	개별민평2년	-30	30	-2		2026-10-22
LG유플러스121-2	AA+	2026-10-13	1,000	10,950	1,900	10.95	3.0	개별민평3년	-30	30	-2		2026-10-22
GS22-1	AA0	2026-10-13	500	6,500	500	13.00	2.0	개별민평2년	-30	30	-11		2026-10-22
GS22-2	AA0	2026-10-13	500	7,200	1,000	14.40	3.0	개별민평3년	-30	30	-10		2026-10-22
키움에프앤아이11-1	A0	2026-10-13	600	2,580	1,150	4.30	2.0	개별민평2년	-30	30	-5		2026-10-22
키움에프앤아이11-2	A0	2026-10-13	400	1,620	800	4.05	3.0	개별민평3년	-30	30	-15		2026-10-22
LS증권1-1	A0	2026-10-14	400	2,120	720	5.30	1.5	회사1.5년	-30	30	5		2026-10-22
LS증권1-2	A0	2026-10-14	300	2,520	610	8.40	2.0	회사2년	-30	30	5		2026-10-22

자료: Freebo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투자증권

주: '-' 표기는 자료 작성 시 공시 전이나 미발표된 상태를 표시, 실선 구분은 공시(채무증권신고)여부, 실선 하단 수요예측 예정 목록은 발행의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단위는 억원(수요예측, 밴드포함, 발행확정), bp(밴드하단, 밴드상단, 결정금리), %(발행금리)

이번 주는 총 4개의 기업에서 6,500억원의 자금 모집을 준비 중이다. 신용도 및 사업 안정성이 우수한 기업들이어서 무난한 자금 모집이 예상된다.

NH투자증권(AA+)은 2년물 600억원, 3년물 700억원으로 자금 모집을 준비 중이다. 우수한 시장지위 및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안정성 지표는 양호하나 발행어음, 기업금융 등 외형 확장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올해 신종자본증권,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확충을 진행했다.

롯데렌탈(A+)은 1.5년물, 2년물, 3년물 트랜치로 총 1,500억원의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렌탈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장기렌탈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사업구조 전환에 따른 투자 확대에 차입 규모가 증가했으나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최대주주 변경이 예정돼 있어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나금융지주는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A-)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5년 후 콜옵션이 부여돼 있으며 희망 금리 밴드는 4.30~4.90%으로 제시했다. 금융지주로서 안정적 신용도를 보유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양홀딩스(AA-)는 2년물 300억원, 3년물 500억원, 5년물 2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 자금 모집에 나선다. 주력 자회사인 삼양사(AA-/S)의 우수한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사 자체 재무구조는 우수하다. 다만 밀가루 등 가격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및 기업 인수로 자회사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어 재무구조 변동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주 회사채 수요예측 예정

종목명	신용등급	수요예측일	발행일	수요예측	만기	밴드기준금리	하단(bp)	상단(bp)
NH투자증권	AA+	2026-10-20	2026-10-29	600	2.0	개별민평2년	-30	30
NH투자증권	AA+	2026-10-20	2026-10-30	700	3.0	개별민평3년	-30	30
롯데렌탈	A+	2026-10-20	2026-10-30	500	1.5	개별민평1.5년	-30	30
롯데렌탈	A+	2026-10-20	2026-10-30	800	2.0	개별민평2년	-30	30
롯데렌탈	A+	2026-10-20	2026-10-30	200	3.0	개별민평3년	-30	30
하나금융지주(신종)	AA-	2026-10-21	2026-10-30	2,700	99NC5	(절대금리)	430	490
삼양홀딩스	AA-	2026-10-23	2026-11-02	300	2.0	개별민평2년	-30	30
삼양홀딩스	AA-	2026-10-23	2026-11-02	500	3.0	개별민평3년	-30	30
삼양홀딩스	AA-	2026-10-23	2026-11-02	200	5.0	개별민평5년	-30	30

자료: Freebo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투자증권

주: ‘-’ 표기는 자료 작성 시 공시 전이나 미발표된 상태를 표시, 실선 구분은 공시(채무증권신고)여부. 실선 하단 수요예측 예정 목록은 발행사의 사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단위는 억원(수요예측, 밴드포함, 발행확정), bp(밴드하단, 밴드상단, 결정금리), %(발행금리)

신용등급 변경

· 등급상향 0건, 전망상향 1건, 등급하향 0건, 전망하향 0건

지난주는 1건의 전망상향이 있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손해보험의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상향 조정해 상향 검토 목록에 등록했다. 보험금지급능력평가 기준 A-(부정적)에서 A-↑로 상향됐으며, 후순위채는 BBB+(부정적)에서 BBB+↑로, 신종자본증권은 BBB(부정적)에서 BBB↑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신한금융지주가 빅투라가 보유한 동사 지분 77.04%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지주로의 대주주 변경 시 계열지원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신용등급 및 전망 변경 내역

평가사	구분	기업명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조정 사유
KR	전망상향	롯데손해보험(IFSR)	2026-10-13	A-/N	A-↑	신한금융지주 동사 지분 77.04%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대주주 변경 시 계열 지원가능성 반영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할 전망
KR, KIS	전망상향	롯데손해보험(후순위)	2026-10-13	BBB+/N	BBB+↑	신한금융지주 동사 지분 77.04%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대주주 변경 시 계열 지원가능성 반영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할 전망
KR, KIS	전망상향	롯데손해보험(신종)	2026-10-13	BBB/N	BBB↑	신한금융지주 동사 지분 77.04%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대주주 변경 시 계열 지원가능성 반영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할 전망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신한투자증권

주: 적용등급(유효등급)은 신용평가사 3사 중 최근 평가된 2개의 신용등급 중 보수적인 등급을 의미하고, 등급전망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표기. 해당 기간동안 rating action을 통해 적용등급(유효등급)이 변경된 경우 '적용등급'으로 분류하며, rating action에도 적용등급(유효등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개별등급'으로 분류하여 표기

발행사 긍정적 등급전망 현황

구분	한기평	한신평	나신평
상향 검토	애큐온캐피탈 (A/캐피탈) 에스케이아이아이테크놀로지 (A-/0차전지소재) 롯데손해보험 (A-/손해보험)	애큐온캐피탈 (A/캐피탈)	애큐온캐피탈 (A/캐피탈) 에스케이아이아이테크놀로지 (A-/0차전지소재)
AA급	엘에스일렉트릭 (AA-/전기장비) 포스코인터내셔널 (AA-/종합상사)	LG전자 (AA/전자) 엘에스일렉트릭 (AA-/전기장비) 포스코인터내셔널 (AA-/종합상사) 한국항공우주산업 (AA-/방산)	엘에스일렉트릭 (AA-/전기장비) 한국항공우주산업 (AA-/방산) 포스코인터내셔널 (AA-/종합상사)
A급	통영에코파워 (A+/발전) LS전선 (A+/전선) LS (A+/지주) 현대코퍼레이션 (A/종합상사) 대한항공 (A/항공운송) 에이치디건설기계 (A/기계)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A-/지주) 한진칼 (A-/지주) 삼성중공업 (A-/조선) 한화오션 (A-/조선)	파르나스호텔 (A+/호텔) 통영에코파워 (A+/발전) 동원에프앤비 (A+/음식료) LS전선 (A+/전선) LS (A+/지주) 대한항공 (A/항공운송) 에이치디건설기계 (A/기계) 한진칼 (A-/지주)	통영에코파워 (A+/발전) 동원에프앤비 (A+/음식료) LS전선 (A+/전선) LS (A+/지주) 대한항공 (A/항공운송) 에이치디건설기계 (A/기계) 한진칼 (A-/지주) 삼성중공업 (A-/조선) 한화오션 (A-/조선)
BBB급	한진 (BBB+/물류) 한신공영 (BBB/건설) 티와이엠 (BBB-/농기계) 화승코퍼레이션 (BBB-/자동차부품)	한진 (BBB+/물류) 두산 (BBB+/지주) 가나안 (BBB/가방제조)	한진 (BBB+/물류) 두산 (BBB+/지주)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신한투자증권

주: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금지급능력평가. 10월 16일 기준

발행사 부정적 등급전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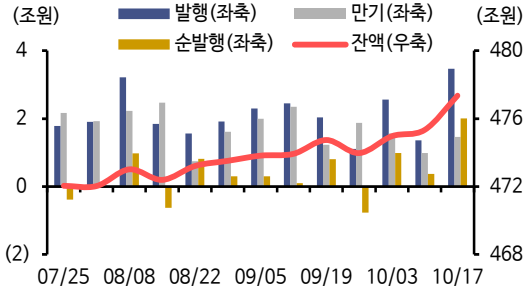
구분	한기평	한신평	나신평
하향 검토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웨이퍼)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웨이퍼)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웨이퍼)
AAA급		현대해상화재보험(AAA/손해보험)	
AA급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에스케이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케이씨씨글라스(AA-/유리제조) 호텔신라(AA-/호텔)	LG화학(AA+/석유화학) 에스케이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롯데케미칼(AA-/석유화학) 케이씨씨글라스(AA-/유리제조)	LG화학(AA+/석유화학) 에스케이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롯데케미칼(AA-/석유화학) 롯데물산(AA-/부동산임대) 케이씨씨글라스(AA-/유리제조)
A급	현대엘리베이터(A+/승강기)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에이치디현대케미칼(A/석유화학) 대우건설(A/건설) 엘에스엠트론(A/농기계) 코리아세븐(A/유통) 신한자산신탁(A-/신탁) 무림페이퍼(A-/제지)	포스코이앤씨(A+/건설) 에이치디현대케미칼(A/석유화학) 코리아세븐(A/유통) 무림페이퍼(A-/제지)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푸른현대생명보험(A+/생명보험) 에이치디현대케미칼(A/석유화학) 코리아세븐(A/유통) 신한자산신탁(A-/신탁) 에코프로(A-/이차전지주주)
BBB급	에스케이디앤디(BBB-/부동산개발)	동화기업(BBB+/건자재) 두산퓨얼셀(BBB/연료전지) 에스케이디앤디(BBB-/부동산개발)	두산퓨얼셀(BBB/연료전지) 신원(BBB-/의류)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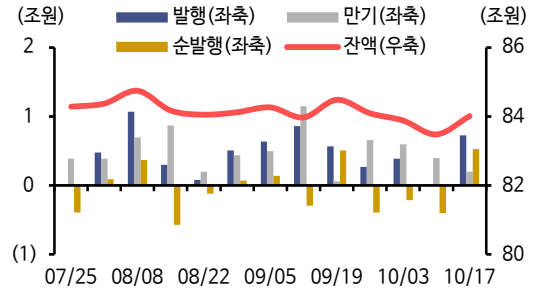
주: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금지급능력평가. 10월 16일 기준

섹터별 현황: 공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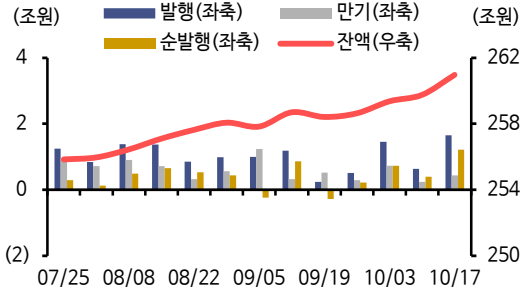
전체 공사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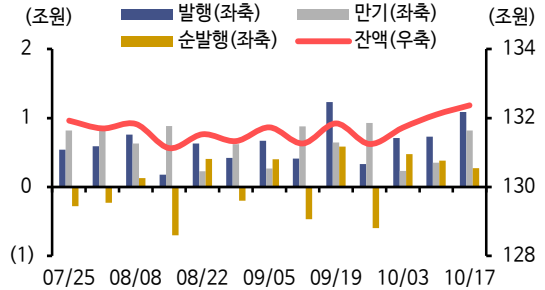
에너지공기업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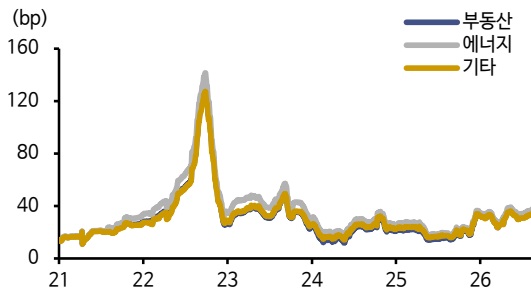
부동산공기업 발행/만기/순발행/잔액(MBS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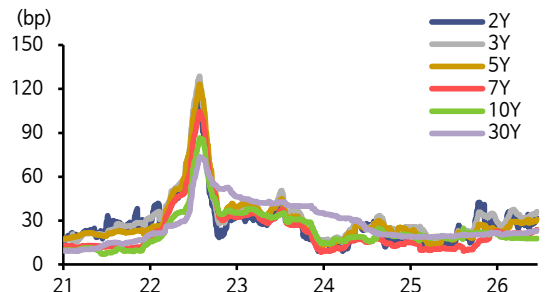
금융·기타공기업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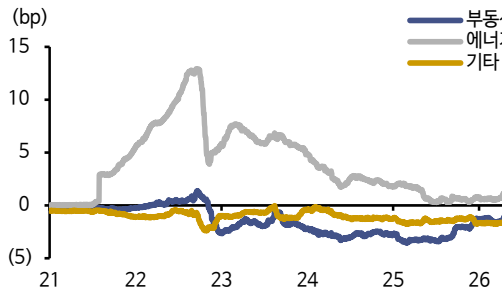
공사채 섹터별 신용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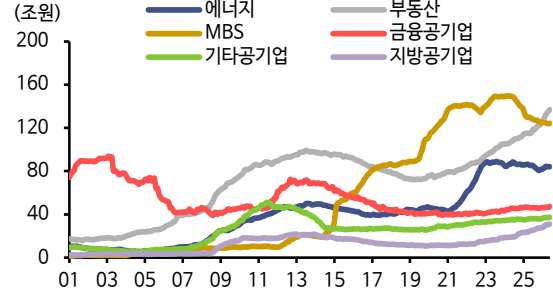
공사채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AAA등급 기준)



공사채 신용 스프레드 갭(AAA 지표물 대비)



공사채 섹터별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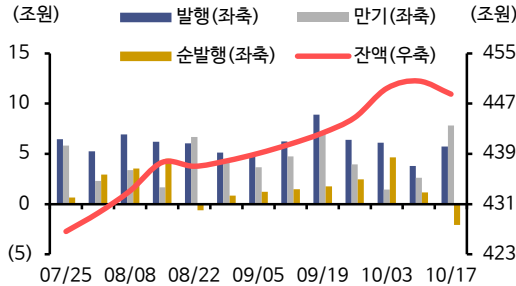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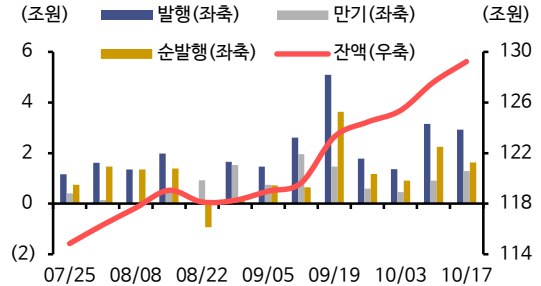


섹터별 현황: 은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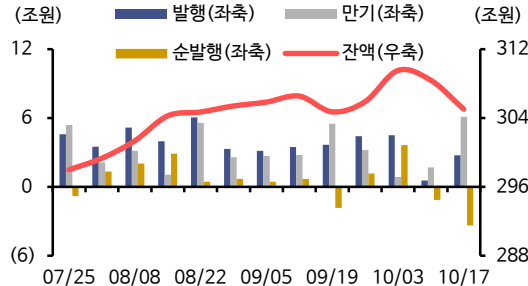
전체 은행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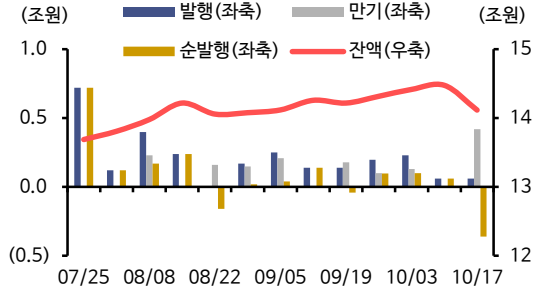
시중은행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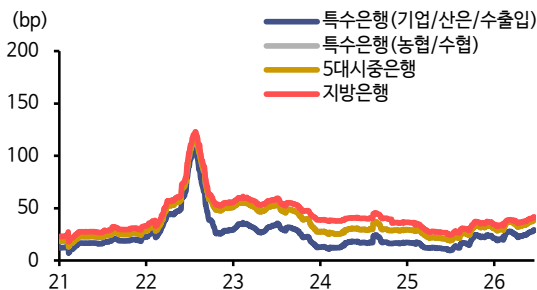
특수은행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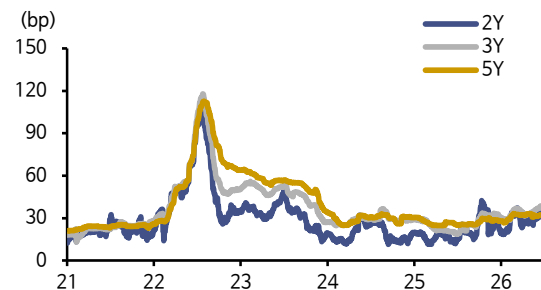
지방은행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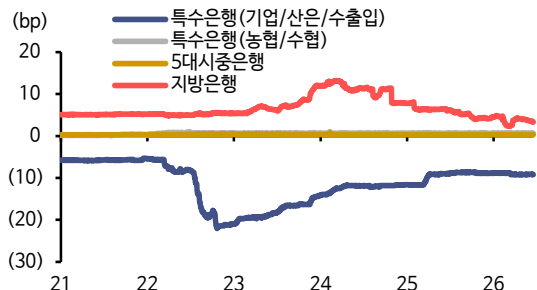
은행채 섹터별 신용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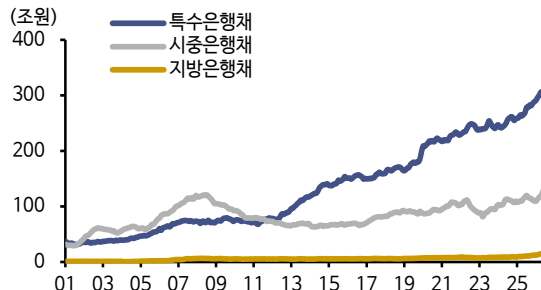
은행채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AAA등급 기준)



은행채 신용 스프레드 갭(AAA 지표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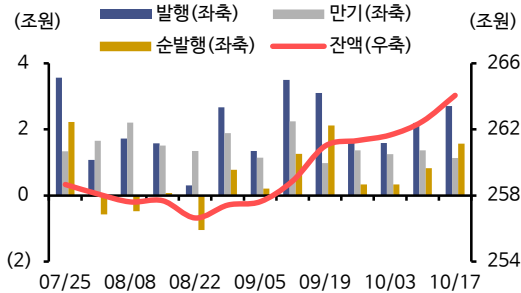
은행채 섹터별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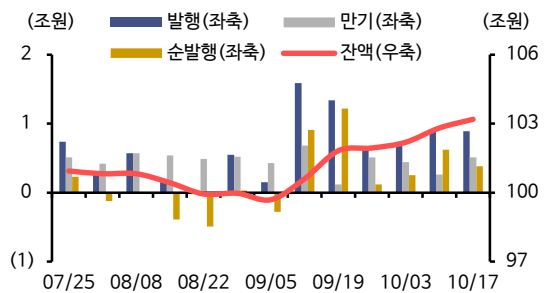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섹터별 현황: 여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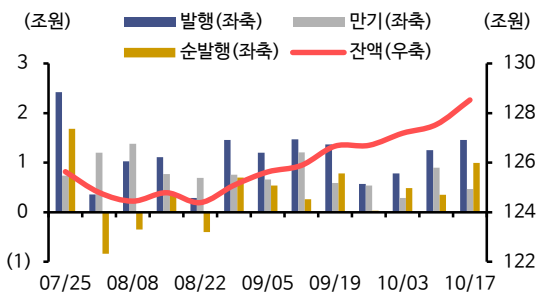
전체 여전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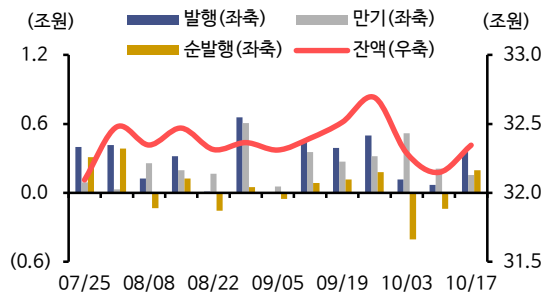
카드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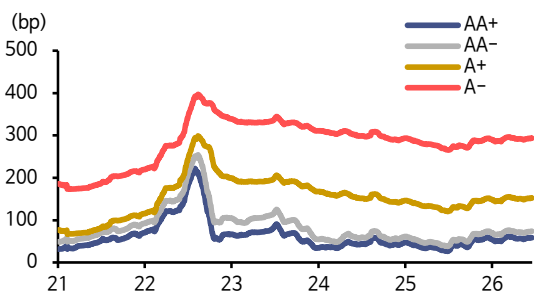
AA-이상 캐피탈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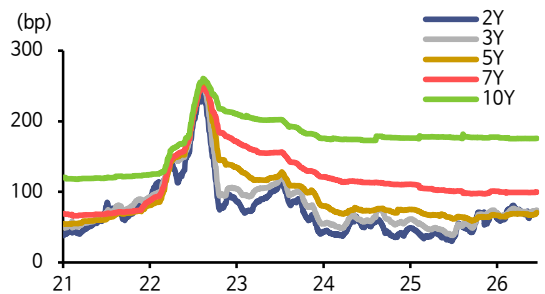
A+이하 캐피탈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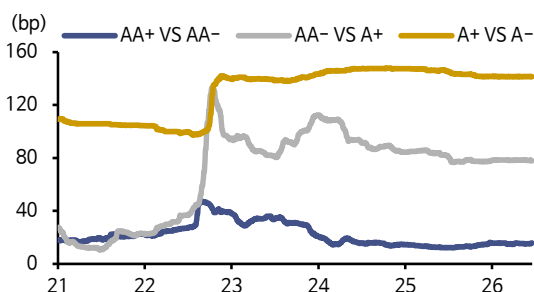
여전채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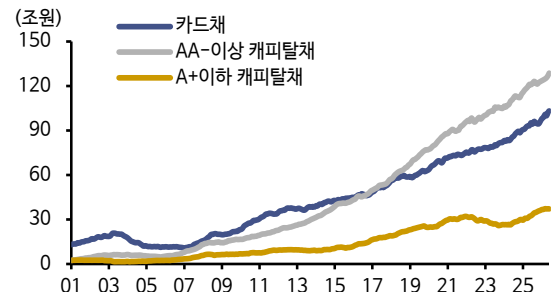
여전채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AA-등급 기준)



여전채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갭



여전채 등급별 크레딧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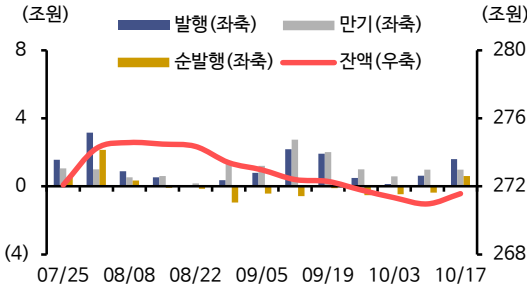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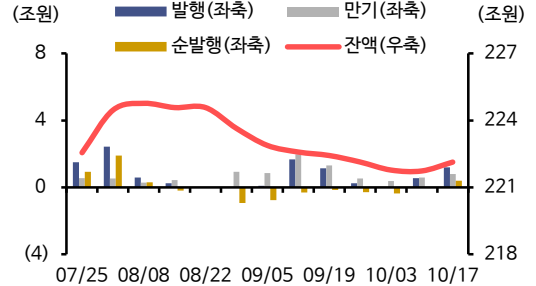


섹터별 현황: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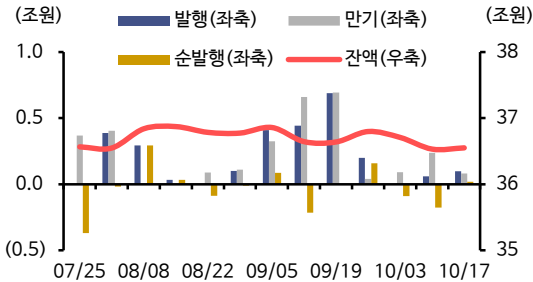
전체 회사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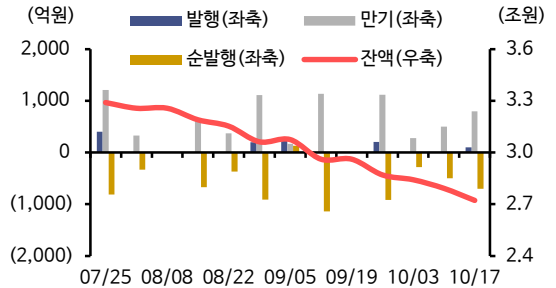
AA-이상 회사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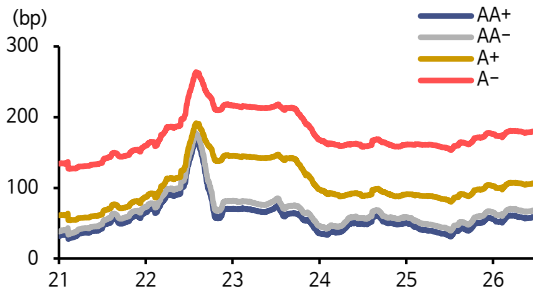
A급 회사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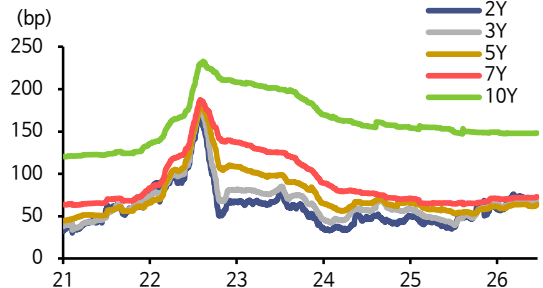
BBB급 이하 회사채 발행/만기/순발행/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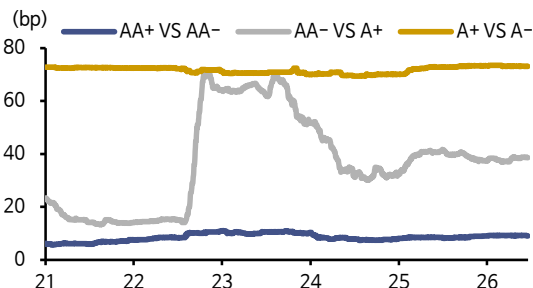
회사채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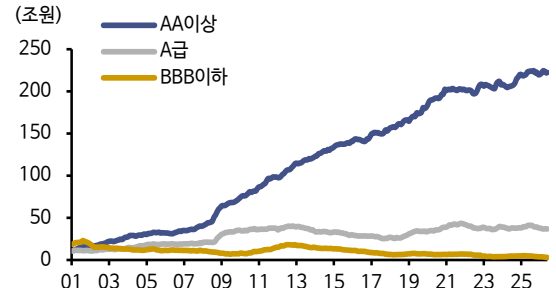
회사채 만기별 신용 스프레드(AA-등급 기준)



회사채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 갭



회사채 등급별 크레딧 잔액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발행사별 스프레드 동향

채권 및 발행사별 스프레드 주간 변동(3Y): 국고대비 스프레드 기준

공사채		회사채 (AA-이상)		회사채 (A+이하)		여전채	
발행사명	변동 (bp)	발행사명	변동 (bp)	발행사명	변동 (bp)	발행사명	변동 (bp)
인천도시공사	1.9	한국수력원자력	1.6	파라다이스	9.3	우리카드	0.7
한국가스공사	1.8	한국남동발전	1.5	DL에너지	0.9	하나카드	0.7
한국수자원공사	1.8	한국남부발전	1.5	동원시스템즈	0.9	롯데카드	0.7
국가철도공단	1.7	한국동서발전	1.5	오일허브코리아여수	0.9	비엔케이캐피탈	0.7
농협중앙회	1.6	한국서부발전	1.5	GS글로벌	0.9	아이비케이캐피탈	0.7
농어촌공사	1.2	광주신세계	0.6	한화비전	0.4	신한카드	0.1
수협중앙회	1.2	빙그레	0.6	효성티앤씨	0.4	케이비카드	0.1
시흥도시공사	1.1	삼양홀딩스	0.6	세아제강지주	0.4	현대카드	0.1
안양도시공사	1.1	고려아연	-0.1	삼성중공업	0.4	비씨카드	0.0
부산교통공사	0.7	한국금융지주	-3.2	현대종합특수강	0.4	엠지캐피탈	-0.2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기준일은 2026년 10월 16일, 대비일은 2026년 10월 9일

채권 및 발행사별 스프레드 주간 변동: 자기등급대비 스프레드 기준

공사채		회사채 (AA-이상)		회사채 (A+이하)		여전채	
발행사명	변동 (bp)	발행사명	변동 (bp)	발행사명	변동 (bp)	발행사명	변동 (bp)
인천도시공사	0.5	한국수력원자력	0.6	파라다이스	8.6	우리카드	0.1
한국가스공사	0.4	한국남동발전	0.5	대한제당	0.3	하나카드	0.1
한국수자원공사	0.4	한국남부발전	0.5	DL에너지	0.2	삼성카드	0.0
국가철도공단	0.3	한국동서발전	0.5	동원시스템즈	0.2	신한카드	0.0
농협중앙회	0.2	한국서부발전	0.5	오일허브코리아여수	0.2	케이비카드	0.0
농어촌공사	-0.2	현대모비스	-0.4	녹십자홀딩스	-0.3	우리금융캐피탈	-0.1
수협중앙회	-0.2	GS	-0.4	파크나스호텔(주)	-0.3	하나캐피탈	-0.1
시흥도시공사	-0.3	농심홀딩스	-0.4	한화비전	-0.3	현대커머셜	-0.1
안양도시공사	-0.3	고려아연	-1.1	효성티앤씨	-0.3	아이엠캐피탈	-0.4
부산교통공사	-0.7	한국금융지주	-4.1	세아제강지주	-0.3	엠지캐피탈	-0.5

자료: 인포맥스, 신한투자증권 / 주: 기준일은 2026년 10월 16일, 대비일은 2026년 10월 9일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차추희, 김상인).
- ◆ 본 자료는 회사채 관련 Credit 이슈에 대해 기술한 자료이므로 주식 및 주식관련 상품에 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